

경추부 질환에 적용하는 추나 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정윤규¹, 김민영¹, 김진수¹, 노해린¹, 최영일¹, 최희승¹, 신동재¹

¹부천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Received : 2013. 5. 25 Reviewed : 2013. 5. 28 Accepted : 2013. 6. 11

The Domestic Trend of Chuna Manual Therapy on Cervical Spinal Disorders

Yun-gyu Jeong, D.K.M.¹, Min-young Kim, D.K.M.¹, Jin-soo Kim, D.K.M.¹, Hae-rin Ro, D.K.M.¹, Young-il Choi, D.K.M.¹
Hee-seung Choi, D.K.M.¹, Dong-jae Shin, D.K.M.¹

¹Dept. of Korea Rehabilitation Medicine, Bu-Chun Jase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s: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domestic trend of Chuna manual therapy on cervical spinal disorders in Korea.

Methods: We investigated the studies on Chuna manual therapy for cervical spinal disorders via searching 6 Korean web databases. As a result, 51 research papers were found to b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published year, published institution, the titles of journals, the types of study, the techniques of Chuna, the instruments for assessment, the Chuna technique and the number of the treatment trials by the cases of cervical spinal disorders and ethical approvals.

Results: The number of the research papers published tended to increase every year. The studies on Chuna manual therapy for cervical spinal disorders were mainl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 The most frequently adopted technique of Chuna in the examined studies was Chuna spine manipulation therapy - cervical spine technique. Visual analogue scale (VAS), neck disability index(NDI) were used as primary means of assessments. The ethical problems of the examined studies needed to be improved.

Conclusions: Reviewing the domestic trend of studies on Chuna manual therapy for cervical spinal disorders and examining the strong and weak points of those treatments are essential for the future studie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view benefits the future in-depth study on the treatments for Chuna in Korean medicine.

Key words: Chuna manual therapy, Cervical spinal disorders, Neck pain, Domestic trend

I. 서론

경추부 질환은 요통만큼이나 흔히 보는 질환이며 원인은 경부긴장,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척추증, 척

수병증, 편타성손상, 후관절증후군, 근근막통증 등 여러가지로 다양하다. 치료방법은 양방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물리치료, 가동화와 손조작법, 경부 칼라, 견인요법, 압통점 주사, 추간관절 주사, 내측지 차단,

■ 교신저자 : 정윤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4번지 부천자생한방병원 지하1층 의국
Tel : (032) 320-8834 Fax : (032) 320-8712 E-mail : cyg9131@naver.com

추간판내 주사, 수술 등이 있으며 심한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그 합병증 등을 생각할때 비수술적 방법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 그 적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¹⁾. 한방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침구요법, 약물요법,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운동요법 및 섭생론적인 관리가 있다. 이중 추나요법의 치료원칙은 舒筋經絡, 活血祛瘀, 疎利關節하여 痺症이나 疼痛제거에 그 목적을 둔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²⁾. 추나요법은 시술자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추나테이블에서 환자의 신체표면에 자극을 가하여 관절, 근육, 인대 및 신경체계를 조절하거나 왜곡된 골격구조를 교정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한의학 치료기술을 말한다. 경추부 질환에 대한 추나치료는 자세분석, 정적축진, 동작축진, 관절가동역 검사, 방사선검사, 정형의학적 검사와 신경의학적 검사 등의 소견을 종합하여 적절한 경추 신전법 및 교정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치료 목표는 통증을 감소시키며 전체 및 분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키며 염증이 있으면 염증의 완화 및 재발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다³⁾.

경추부 질환에 적용하는 추나치료와 관련된 논문들은 해마다 그 편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례보고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논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을 한 논문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편이며 또 오래된 논문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경추부 질환에 적용하는 추나치료와 관련된 국내 논문들을 취합 및 분석하고 그동안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추나치료가 근거중심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고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 방법

1. 논문 검색

국내 문헌 검색을 위해 국내 검색 포털을 사용하였다. ‘Naver 전문정보 검색’, ‘한국전통지식포털’, ‘전통의학정보포털(OASIS)’, ‘국회도서관’, ‘과학기술정보 통합서비스(NDSL)’,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기본 대상으로 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추나’, ‘경추’, ‘경향통’, ‘한방치료’, ‘보존적 치료’ 등을 기본 검색어로 하였으며 한의학 논문 이외의 논문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수기요법’, ‘카이로프랙틱’의 검색어도 같이 활용하였으며 기간은 2012년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하였다. 그 결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대한침구학회’, ‘대한한학회’, ‘동의신경정신과학회’, ‘대한스포르츠한학회’ 등의 학회지에서 51편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었으며 해당 논문들의 원문을 찾아 연구하였다(Table I).

Table I . Published Year, Subject, Title of Journal

Published Year	Subject	Title of Journal
1975	頸椎病의 手技療法에 關한 文獻的 考察 ⁴⁾	대한한학회지
1991	頸椎病의 手技療法 ⁵⁾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5	頸椎病의 經筋理論과 手技療法의 活用に 關한 研究 ⁶⁾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0	경추 추나치료 후 발생한 뇌졸중 1례 ⁷⁾	대한한학회지
2000	推拿療法이 경향부 통증질환에 미치는 臨床의 效果 ⁸⁾	대한추나의학회지
2000	경추 추나요법이 추골동맥과 기저동맥 혈류에 미치는 영향 ⁹⁾	대한추나의학회지
2001	경추추간판 탈출증환자의 견인요법과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¹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2	비정상 경추 만곡을 가진 경향통 환자의 추나치료 임상례 ¹¹⁾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Published Year	Subject	Title of Journal
2003	후천성(後天性) 사경증(斜頸症) 환자(患者) 치험(治驗) 1례(例) ¹²⁾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4	경추 추나를 이용하여 치료한 특발성 결막염 치험 1례 ¹³⁾	대한추나의학회지
2005	추나요법의 경향통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¹⁴⁾	대한추나의학회지
2005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1례에 대한 증례보고 ¹⁵⁾	대한추나의학회지
2006	추나요법이 경추만곡 및 통증변화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 ¹⁶⁾	경희대학교 논문집
2006	경추 후만에 대한 낙차 교정기법을 이용한 추나치료 치험례 ¹⁷⁾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6	교통사고 후 경추부염좌를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추나 수기요법 치험 3례 ¹⁸⁾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6	경추추나치료 후 발생한 경막파열 환자 1례 보고 ¹⁹⁾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6	경추 추나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임상보고 ²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6	과소전만된 경향통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임상연구 ²¹⁾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7	경추 신연요법을 적용한 연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치험 1례 ²²⁾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7	Chiropractic이 경부통증 환자의 관절가동범위 및 통증척도에 미치는 영향 ²³⁾	국민대학교 스포츠포츠산업대학원 논문집
2007	交通事故로 유발된 頸項痛 患者의 推拿療法의 효과에 대한 臨床的 研究 ²⁴⁾	대한침구학회지
2007	카이로프랙틱과 근에너지기법(MET)이 만성목통증환자의 관절가동범위와 통증정도에 미치는 영향 ²⁵⁾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포츠대학원 논문집
2007	일자목 환자를 위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효과에 관한 연구 ²⁶⁾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007	경추 disc bulging과 protrusion 및 uncovertebral joint arthrosis 소견을 보인 경향통 환자를 대상으로 보존적 치료와 仰臥位 頸椎 伸展法 및 矯正法을 병용한 치험 1례 ²⁷⁾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7	한의학적 치료로 호전된 경추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영상의학적 변화 5례 ²⁸⁾	대한침구학회지
2008	근에너지 기법과 침치료를 병행한 경련성 사경 치험 2례 ²⁹⁾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8	추나요법을 적용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경추척수증 환자 치험 1례 ³⁰⁾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8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88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³¹⁾	대한침구학회지
2008	頸項部 통증 환자의 경부 추나와 침(acupuncture)의 병합요법 효과 ³²⁾	CHA 의과대학 논문집
2009	경추 추나 치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초기 HRV, VAS 변화에 미치는 영향 ³³⁾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9	교통사고로 유발된 경향통 환자의 근에너지기법(MET)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³⁴⁾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9	교통사고로 유발된 경향통 환자의 근막이완술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³⁵⁾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9	추나요법을 적용한 후종인대골화증을 동반한 경추척추관협착증 환자의 경과관찰 1례 ³⁶⁾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9	거북목증후군의 경추만곡 호전에 대한 봉추나요법과 침술의 효과와 방사선학적 평가방법 연구 ³⁷⁾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9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호전된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의 영상의학적 변화 ³⁸⁾	대한침구학회지
2010	경련성 사경증의 보존적 치료 효과에 대한 문헌적 고찰 : 2000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³⁹⁾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0	일자목 증후군 환자에게 수기요법이 미치는 영향 ⁴⁰⁾	계명대학교 스포츠포츠산업대학원 논문집

Published Year	Subject	Title of Journal
2010	추나 요법을 적용한 경수부 척수 손상 환자의 경과관찰 1례 ⁴¹⁾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1	상부경추 추나 및 두개저 이완기법을 적용한 안구건조증 치험 2례 ⁴²⁾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11	경추 추나치료를 적용한 압박성 요골신경마비 환자 치험 2례 ⁴³⁾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1	추나 요법을 적용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환자의 경과관찰 1례 ⁴⁴⁾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1	교통사고로 발생한 경항통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병행치료군과 중성어혈약침 병행치료군의 비교연구 ⁴⁵⁾	대한침구학회지
2011	Muscle Energy Techniques 및 한의학적 치료를 이용한 후천성 회전형 사경의 치험 1례 ⁴⁶⁾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1	교통사고 후 경추부 염좌를 진단 받은 환자들에 대한 추나 치료의 효과 ⁴⁷⁾	대한스포츠한의학학회지
2011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권유를 받은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가 임상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⁴⁸⁾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1	카이로프랙틱 경추교정이 대학생들의 경추배열과 경부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⁴⁹⁾	한서대학교 건강증진대학원 논문집
2012	교통사고로 유발된 경추성 두통 환자의 추나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⁵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12	교통사고로 유발된 편타성 손상에 대한 근에너지기법(MET)의 임상 연구 ⁵¹⁾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2	경추 후만에 대한 추나치료 치험례 ⁵²⁾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2	교통사고 후 경항통 발생환자 중 약침치료군, 추나치료군, 추나약침 병행치료군 비교연구 ⁵³⁾	대한침구학회지
2012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경항통에 대한 약침과 추나의 치료효과 비교 연구 ⁵⁴⁾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 연구방법

상기 방법으로 검색된 5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원문을 찾아 발표연도, 발표 학술지, 발표 기관, 논문 형태, 추나 단독치료 여부, 적용된 추나기법, 사용된 평가도구, 질환별 분류, 연구윤리에 대한 언급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을 진행하였다. 발표기관은 제1저자가 속해있는 기관만을 조사하였으며 적용된 추나기법 및 평가도구는 복수로 쓰인 경우가 많아 복수처리하여 정리하였다.

Ⅲ. 결 과

1. 발표 연도별 분류

경추부 추나치료와 관련된 국내 논문은 처음으로 1975년에 1편이 발표되었고, 1991년 및 1995년에 각각 1편, 2000년에 3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각 1편, 2005년에 2편, 2006년에 6편, 2007년에 7편, 2008년에 4편, 2009년에 6편, 2010년에 3편, 2011년에 8편, 2012년에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Fig. 1).

2. 발표 학술지별 분류

경추부 추나치료와 관련된 국내 논문 51편을 발표 학술지별로 분류해보면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대한 추나의학회지)에 21편(41%)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에 12편(23%), 대한침구학회지에 6편(12%), 대한한의학회사에 2편(4%), 경희대학교 논문집, 계명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논문집,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논문집,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논문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대한스포츠한의학회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한서대학교 건강증진대학원 논문집, CHA 의과학대학교 논문집에 각각 1

편씩(2%)이 게재되었다(Fig. 2).

3. 발표 기관별 분류

경추부 추나치료와 관련된 국내 논문 51편을 발표 기관별로 분류해보면 자생한방병원에서 10편(19%), 경희대에서 7편(14%), 대전대에서 6편(12%), 원광대에서 5편(10%), 동서한방병원에서 4편(8%), 동국대, 우석대에서 각각 3편(6%), 대구한의과대학에서 2편(4%), 계명대, 국민대, 동신대, 명지대, 상지대, 수한의원, 제인한방병원, 시흥중앙한방병원, 춘천한방병원, 한서대, CHA 의과학대학에서 각각 1편(2%)이 발표되었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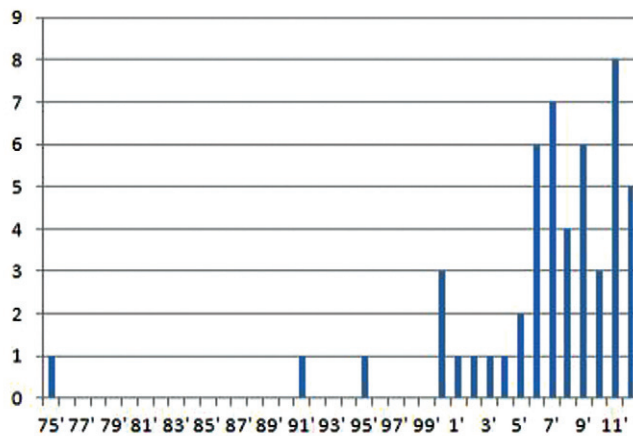


Fig. 1. The number of the theses sorted by published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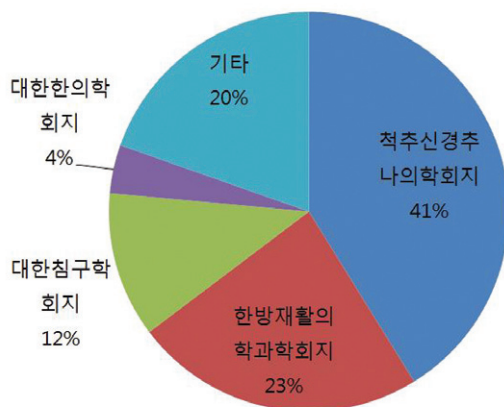


Fig. 2. The number of the theses sorted by the published journ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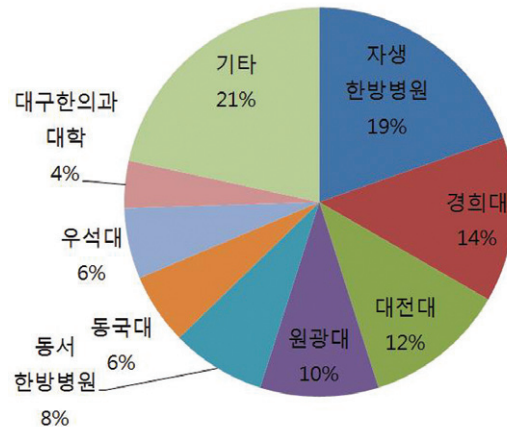


Fig. 3. The number of the theses sorted by the published institution.

4. 논문 종류별 분류

경추부 추나치료와 관련된 51편의 논문을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증례 보고(case report) 논문이 28편(55%), 비무작위 대조군연구(none randomised controlled trials-NRCT)가 9편(17.5%), 무작위 대조군연구(randomised controlled trials-RCT)가 9편(17.5%), 체계적 고찰(systemic review) 연구가 5편(10%)으로 조사되었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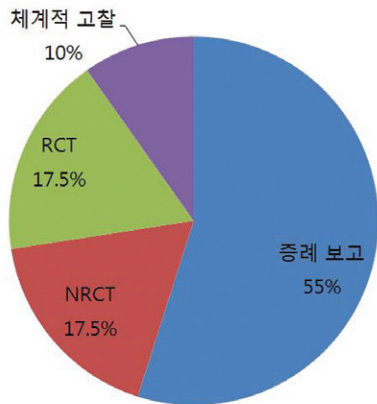


Fig. 4. The percentage of the theses sorted by the types of study.

5. 추나 단독치료 여부

51편의 논문중 체계적 고찰 논문 5편을 제외한 46편의 임상연구논문에서 추나 치료만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7편(15%), 침, 약물, 뜸, 물리치료 등 한방통합치료로 진행을 한 경우는 39편(85%)으로 조사되었다.

6. 적용된 추나 기법

46편의 임상연구논문에서 적용된 추나 기법을 살펴보면 양와위 경추 교정법이 16편(35%), 양와위 경추 신전법이 15편(33%), JS 신연기법이 12편(26%),

양와위 경추 굴신법이 7편(15%), 경근추나가 5편(11%), 좌위 경추 교정법이 3편(7%), 복와위 경추 신전법이 2편(4%), 봉추나, 근막이완술, 낙차 교정기법, 복와위 경추 교정법, 상부경추추나, 두개저 이완기법, 복와위 두상골 교정법, 양와위 경추 신연법, 어제부 후두부 신연, 어제부 후두부 신전, 시지 관절주-복와위, 양측 시지 관절주가 각각 1편(2%),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기법인 경추 신전법, 좌위 회전 교정법, 경추 내주신전교정법, 후방변위 후두골, 회전 꺾기가 각각 1편(2%)에서 적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5).

7. 평가 도구

46편의 임상연구논문에서 사용한 평가 도구를 조사한 결과 visual analogue scale(VAS)가 35회(76%), 이학적검사 16회(35%), neck disability index(NDI)가 13회(28%), X-ray가 10회(22%),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Recovery rate of Hirabayashi, pain disability index(PDI)가 각각 4회(9%), numeric rating scale(NRS),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SF-MPQ),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score(JOA Score)가 각각 2회(4%), angiography, cisternography, heart rate variability(HRV), manual muscle test(MMT), Tsui's Scale,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VNRS), transcranial doppler sonography(TCD), ocular surface disease index(OSDI), clinical grade of OPLL, short-form 36 (SF-36), pain rating score (PRS), patient's subjective symptom grade (PSSG), pressure pain thresholds(PPT)가 각각 1회(2%)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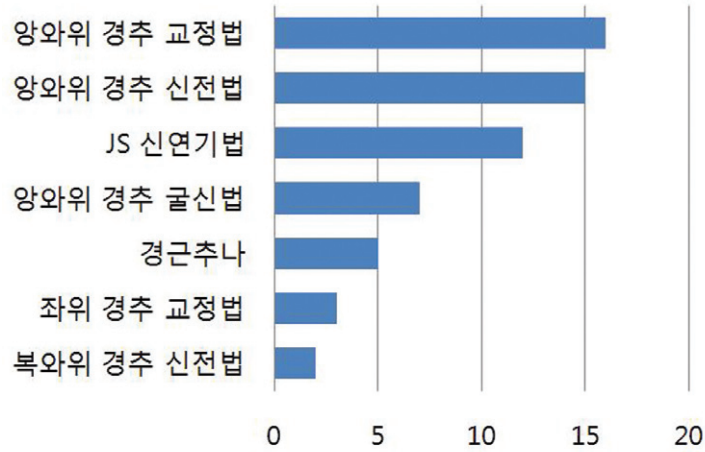


Fig. 5. Applied chuna techniq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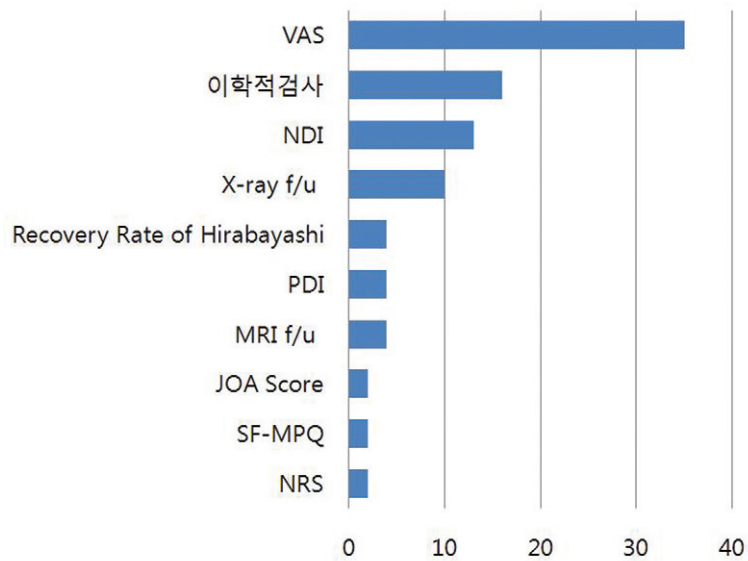


Fig. 6. Assessment means for outcome.

8. 경추부 질환별 분류에 따른 사용 기법, 치료 횟수

46편의 임상연구 논문을 경추부 질환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별무진단의 경향통이 15편(33%), 경추부 염좌가 10편(22%),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9편(20%), 사경이 3편(7%), 경추 척수증,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

증, 일자목증후군이 각각 2편(4%), 거북목증후군, 경추성 두통, 안구건조증, 압박성 요골신경마비, 특발성 결막염, 경추 척추관협착증이 각각 1편(2%)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각 질환별로 사용되는 기법 및 치료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II).

Table II . Chuna Technique and The Number of Treatment Trials by The Cases of Cervical Spinal Disorders

Cervical Spinal Disorders (the number of papers)	Chuna Treatments Usage	Treatment Times
Post neck pain -No diagnosis (15. 33%)	양와위 경추 신전법(8회 53%), 양와위 경추 교정법(3회 20%), JS 신연기법 (2회 13%), 후방변위 후두골(1회 6%), 회전찍기(1회 6%), MET(1회 6%), 경추 신전법(1회 6%), 좌위 회전 교정법(1회 6%), 경추 내주신전교정법(1회 6%), 좌위 경추 교정법(1회 6%), 낙차 교정기법(1회 6%)	1~5회(5편 33%) 6~10회(4편 27%) 20회 이상(3편 20%) 11~15회(1편 7%) 16~20회(1편 7%)
Sprain(10. 22%)	양와위 경추 교정법(3회 30%), 좌위 경추 교정법(2회 20%), 경근추나(2회 20%), JS 신연기법(2회 20%), 양와외 경추 신전법(1회 10%), 굴곡신연기법(1회 10%), 근막이완술(1회 10%), 복와위 경추 교정법(1회 10%), 양와위 경추 굴신법(1회 10%), 어제부 후두부 신연(1회 10%), 어제부 후두부 신전(1회 10%), 시지 관절주-복와위(1회 10%), 양측 시지 관절주(1회 10%)	1~5회(6편 60%) 6~10회(3편 30%) 16~20회(1편 10%)
Cervical disc herniation(9. 20%)	양와위 경추 굴신법(1회 11%), 양와위 경추 신연법(1회 11%), 복와위 경추 신전법(2회 22%), JS 신연기법(3회 33%), 양와위 경추 신전법(5회 56%), 양와위 경추 교정법(6회 67%)	10~15회(3편 33%) 15~20회(2편 22%) 20회 이상(1편 11%)
Torticollis(3. 7%)	경근추나(3회 100%)	10~20회(2편 67%) 20~30회(1편 33%)
Myelopathy(2. 4%)	양와위 경추 굴신법(2회 100%), JS 경추 신연기법(2회 100%)	10~15회(2편 100%)
OPLL(2. 4%)	양와위 경추 굴신법(2회 100%), JS 신연기법(1회 50%), 양와위 경추 교정법(1회 50%), 복와위 두상골 교정법(1회 50%)	15~20회(1편 50%) 20~25회(1편 50%)
일자목증후군 (2. 4%)	카이로프랙틱 기법(2회, 100%)	12회(1편 50%) 48회(1편 50%)
Turtle neck syndrome(1. 2%)	경근 봉추나(1회 100%), 정골 봉추나(1회 100%)	14회(1편 100%)
Cervicogenic Headache(1. 2%)	양와위 경추 굴신법(1회 100%), 양와위 경추 교정법(1회 100%)	3회(1편 100%)
Dry eye syndrome(1. 2%)	상부경추추나(1회 100%), 두개저 이완기법(1회 100%)	8회(1편 100%) 16회(1편 100%)
Radial Nerve Palsy(1. 2%)	양와위 경추 신전법(1회 100%), 양와위 경추 교정법(1회 100%), JS 경추 신연기법(1회 100%)	5회(1편 100%) 18회(1편 100%)
Idiopathic Conjunctivitis (1. 2%)	양와위 경추 교정법(1회 100%)	6회(1편 100%)
Stenosis(1. 2%)	양와위 경추 굴신법(1회 100%), JS 경추 신연기법(1회 100%)	21회(1편 100%)

9. 연구 윤리

체계적 고찰 연구 5편을 제외한 46편의 임상연구 논문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연구에 대

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논문이 39편(85%),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를 얻은 경우가 6편(13%),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얻은 경우가 1편(2%)으로 조사되었다.

IV. 고 찰

목과 허리의 통증은 임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성인의 80%는 일생 중 적어도 한번은 허리의 통증을 경험하게 되며 목과 주변부위의 통증은 요통 다음으로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다⁴⁴. 목은 제 1,2 경추의 구조적인 특이성으로 인하여 타 부위에 비하여 고도의 유연성과 넓은 운동범위를 갖는 반면에 주변의 다른 구조물에 의하여 지지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쉽게 손상을 받을 위험이 높다⁸. 목의 통증은 흔하며 만성적 경과를 거치기 쉽고, 또한 자주 재발된다. 이러한 목의 통증은 해부학적인 특성과 관련되기도 하는데, 경추는 상대적으로 관절운동 범위가 크고 관절의 안정성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외상이나 병적 상태로 인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목에는 많은 동통감수 조직이 있고,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통증이 발생하기 쉽다²⁴. 경향통의 한의학적 치료방법에는 약물치료, 침구치료, 수기요법, 물리요법, 정신치료요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기요법 중에서도 추나요법은 인체의 골격구조 중 척추와 골반에 나타나는 위치이상을 교정함으로써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인체의 근본적인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여러 임상보고에서 경향부 통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

이에 경추부 질환에 적용하는 추나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6종의 국내 검색포털을 이용하여 51편의 논문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발표 학술지별로 분류하자면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대한추나의학회지)에 21편(41%)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고,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에 12편(23%), 대한침구학회지에 6편(12%), 대한한의학회

지에 2편(4%)이 각각 게재되었다. 그 외 대학원논문집 및 기타 한의학 관련 학회지에 10편(20%)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저자의 전공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논문들이 한의사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며 5편(10%)의 논문이 운동처방학과, 재활복지학과, 스포츠학과 등에서 작성되었다.

발표 기관별로 분류해보면 자생한방병원에서 10편(19%), 경희대에서 7편(14%), 대전대에서 6편(12%), 원광대에서 5편(10%), 동서한방병원에서 4편(8%), 동국대, 우석대에서 각각 3편(6%), 대구한의과대학에서 2편(4%), 그 외 대학 및 한방병원에서 11편(21%)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보면 한의학 관련 기관 및 대학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표연도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1975년에 처음으로 1편이 발표되었고, 1991년 및 1995년에 각각 1편, 2000~2005년에 각각 1~3편이 발표되었다가 2006년부터 평균적으로 5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 발표되는 논문의 수가 점차적으로 상승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문 형태별로 분류를 하자면 임상논문 중 증례 보고(case report) 논문이 28편(55%)으로 가장 많았고 비무작위 대조군연구가 9편(17.5%), 무작위 대조군연구가 9편(17.5%), 체계적 고찰(systemic review) 연구가 5편(10%)으로 조사되었다. 증례보고가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최⁵⁵의 연구에서 요추부 질환에 적용하는 추나치료에 관한 논문중 증례보고의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형태별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조군을 설정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추나요법을 포함한 군과 추나요법을 포함하지 않은 군을 단순 비교하는 형태가 많아서 앞으로는 보다 참신한 형태의 대조군 설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6편의 임상연구 논문에서는 추나 치료만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7편(15%), 침, 약물, 뜸, 물리치료 등 한방통합치료로 진행을 한 경우는 39편

(85%)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한방복합 치료가 적용이 되었으며 그나마 추나요법 단독으로 적용한 7편의 논문중 4편의 논문은 비한 의사에 의한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논문이었고, 한 의사에 의한 3편의 논문중 2편의 논문은 추나치료후 부작용에 관한 논문이었기에 앞으로 추나요법을 단독으로 적용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연구논문에서 사용한 평가 도구를 조사한 결과 VAS가 35회(76%), 이학적검사 16회(35%), NDI가 13회(28%), X-ray가 10회(22%), MRI, Recovery Rate of Hirabayashi, PDI가 각각 4회(9%), NRS, SF-MPQ, JOA Score가 각각 2회(4%), Angiography, Cisternography, HRV, MMT, Tsui's Scale, VNRS, TCD, OSDI, Clinical grade of OPLL, SF-36, PRS, PSSG, PPT가 각각 1회(2%)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VAS, NDI, PDI, SF-MPQ 등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평가지수들이 다수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최⁵⁾의 연구에서 요추부 질환에 적용하는 추나치료에 관한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평가도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여 평가했음을 알 수 있었고 X-ray나 MRI 등 객관적인 평가 방법의 비율 또한 약간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46편의 임상연구논문에서 적용된 추나 기법을 살펴보면 양와위 경추 교정법이 16편(35%), 양와위 경추 신전법이 15편(33%), JS 신연기법이 12편(26%), 양와위 경추 굴신법이 7편(15%), 경근추나가 5편(11%), 좌위 경추 교정법이 3편(7%), 복와위 경추 신전법이 2편(4%)에서 사용되었다. 양와위 경추 교정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기법을 단독으로 적용한 논문은 없었고 양와위 경추 교정법과 더불어 양와위 경추 신전법이나 JS 신연기법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연구가 많았다.

임상연구논문에서 진단명으로 분류를 해보면 별무진단의 경향통이 15편(33%)으로 가장 많았고 염좌가 10편(22%), 경추 추간관 탈출증이 9편(20%), 사경이 3편(7%), 척수증,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일자목증

후군이 각각 2편(4%)이었다. 그리고 특이한 진단으로 안구건조증, 특발성결막염이 각각 1편(2%)씩 있었다.

46편의 임상연구논문에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조사해본 결과 이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논문이 39편(85%),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를 얻은 경우가 6편(13%),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얻은 경우가 1편(2%)으로 조사되어서 추후에 진행될 연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경추부 질환에 적용하는 추나치료에 관련된 국내 51편의 논문을 고찰하였으나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검색 포털에서 '추나', '경추', '경향통', '한방치료', '보존적치료' 등을 기본 검색어로 하고 '수기요법', '카이로프랙틱'의 검색어도 같이 활용하여 최대한 관련된 논문이 빠지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개별적인 기법 및 진단명을 제목으로 한 논문들은 검색이 안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보이며 본 연구가 앞으로 추나치료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에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V. 결 론

경추부 질환에 적용하는 추나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51편의 논문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경추부 질환에 적용하는 추나치료에 대한 국내 논문은 1975년에 처음 발표가 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까지는 주로 문헌고찰을 위주로 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에 처음으로 증례보고 및 대조군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발표논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양상을 보였다. 학술지별로는 척추신경추추나학회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에 60%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발표기관은 한의학 관련 기관 및 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형태별 분류에서는 증례보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상논문의 85%에서 침치료, 약물치료, 뜸치료 등을 포함한 한방통합치료로 진행되었다. 적용된 추나기법은 양와위 경추 교정법과 더불어 양와위 경추 신전법이나 JS 신연기법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논문이 많았고 평가도구로는 VAS, 이학적검사, NDI, X-ray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연구윤리에서는 85%의 논문이 이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Ⅵ. 참고문헌

1.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 서울:군자출판사. 2007:187-214.
2.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방재활의학. 서울:군자출판사. 2012:70-1.
3.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추나의학. 서울: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11:3, 4, 186.
4. 박윤희, 정석희, 이종수, 김성수, 신현대. 頸椎病의 手技療法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75;12(1):237-50.
5. 박윤희, 송용선, 이명중. 頸椎病의 手技療法.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1;1(1):45-9.
6. 오민석, 이철완. 頸椎病의 經筋理論과 手技療法의 活用에 關한 研究.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1995;5(1):329-39.
7. 이상호, 이종립, 김성수. 경추 추나치료 후 발생한 뇌졸중 1례. 대한한의학회지. 2000; 21(4):264-70.
8. 김기옥, 이종수. 推拿療法이 경향부 통증질환에 미치는 臨床的 效果. 대한추나의학회지. 2000;1(1):67-82.
9. 신병철, 김도환, 김상돈, 송용선. 경추 추나요법이 추골동맥과 기저동맥 혈류에 미치는 영향. 대한추나의학회지. 2000;1(1):45-53.
10. 김상돈, 김미영, 임양의, 이수영, 신병철, 권영달, 송용선, 김형균. 경추추간관 탈출증환자의 견인요법과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1;11(4): 39-48.
11. 이승민, 최유석, 박영희, 금동호. 비정상 경추 만곡을 가진 경향통 환자의 추나치료 임상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2;12(4):161-9.
12. 원호영, 이동원, 최은정, 김경수, 김은정. 후천성(後天性) 사경증(斜頸症) 환자(患者) 치험(治驗) 1례(例).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3; 14(1):141-7.
13. 강지훈, 최유석, 김대필, 박영희, 금동호, 박영호. 경추 추나를 이용하여 치료한 특발성 결막염 치험 1례. 대한추나의학회지. 2004;5(1): 109-16.
14. 오세춘, 박원형. 추나요법의 경향통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추나의학회지. 2005; 6(1):1-9.
15. 고연석, 이정환, 박태용, 조준기, 김대중, 김남수, 신병철, 송용선.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1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추나의학회지. 2005; 6(1):157-67.
16. 최혁. 추나요법이 경추만곡 및 통증변화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 경희대학교. 2006:1-24.
17. 박장우, 황재필, 김민균, 허동석, 오민석. 경추 후만에 대한 낙차 교정기법을 이용한 추나치료 치험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6;1(2): 111-23.
18. 박현호, 장준호, 박신경, 김현호, 김민철. 교통사고 후 경추부염좌를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추나 수기요법 치험 3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6;16(4):143-54.
19. 공재철, 박태용, 고연석, 원재균, 박단서, 신병철. 경추추나치료 후 발생한 경막파열 환자 1례 보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06;1(1): 45-50.
20. 고연석, 박태용, 공재철, 오원교, 송용선, 신병철. 경추 추나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임상보고.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6;16(4):83-95.

21. 류현식, 전성하, 박동수, 이수길. 과소전만된 경향통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임상연구. 척추신경추추나학회지. 2006;1(2):11-20.
22. 이아라, 정원석, 이준환, 송미연. 경추 신연요법을 적용한 연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치험 1례. 척추신경추추나학회지. 2007;2(2):123-30.
23. 김홍룡. Chiropractic이 경부통증 환자의 관절가동범위 및 통증척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2007:1-42.
24. 박서영, 김재수, 고경모, 최성훈, 이윤규, 이윤경, 이경민, 이봉효, 임성철, 우창훈, 안희덕, 정태영, 서정철. 交通事故로 유발된 頸項痛患者의 推拿療法의 효과에 대한 臨床的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7;24(6):37-44.
25. 박기훈. 카이로프랙틱과 근에너지기법(MET)이 만성목통증환자의 관절가동범위와 통증 정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2007:1-40.
26. 김정석. 일자목 환자를 위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효과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7: 1-93.
27. 류기준, 김지형, 안건상, 이재균, 권승로. 경추 disc bulging과 protrusion 및 uncovertebral joint arthrosis 소견을 보인 경향통 환자를 대상으로 보존적 치료와 仰臥位 頸椎 伸展法 및 矯正法을 병용한 치험 1례. 척추신경추추나학회지. 2007;2(2):33-40.
28. 문자영, 송주현, 임명장, 강인, 이효은, 조재희, 김학재, 장형석. 한의학적 치료로 호전된 경추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영상의학적 변화 5례. 대한침구학회지. 2007;24(5):229-40.
29. 박현호, 정지은, 정원희, 김민철, 박회진. 근에너지 기법과 침치료를 병행한 경련성 사경 치험 2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8;18(4):231-42.
30. 유정석, 이휘용, 조이현. 추나요법을 적용한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경추척수증 환자 치험 1례. 척추신경추추나학회지. 2008;3(1):65-72.
31. 이효은, 조재희, 문자영, 임명장, 강인, 이한, 정호석, 장형석.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 88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8;25(6):145-52.
32. 이경열. 頸項部 통증 환자의 경부 추나와 침(acupuncture)의 병합요법 효과. CHA 의과대학교. 2008:1-39.
33. 박지현, 이정민, 홍서영. 경추 추나 치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초기 HRV, VAS 변화에 미치는 영향. 척추신경추추나학회지. 2009;4(2):47-60.
34. 전태동, 이한길, 홍서영, 허동석, 윤일지. 교통사고로 유발된 경향통 환자의 근에너지기법(MET)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9;19(1):125-34.
35. 정원희, 정지은, 서상경, 강준혁, 이창희. 교통사고로 유발된 경향통 환자의 근막이완술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척추신경추추나학회지. 2009;4(2):21-9.
36. 이진복, 이휘용, 조이현, 정시영. 추나요법을 적용한 후종인대골화증을 동반한 경추척추관협착증 환자의 경과관찰 1례. 척추신경추추나학회지. 2009;4(1):85-94.
37. 오원교, 이유진, 신병철. 거북목증후군의 경추만곡 호전에 대한 봉추나요법과 침술의 효과와 방사선학적 평가방법 연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9;19(1):113-24.
38. 김기역, 김우영, 한상엽, 이현중, 김기주, 정다운, 문태웅, 김창연.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호전된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의 영상의학적 변화. 대한침구학회지. 2009;26(4):71-7.
39. 김경석, 김성수, 정석희, 이종수. 경련성 사경증의 보존적 치료 효과에 대한 문헌적 고찰 : 2000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척추신경추추나학회지. 2010;5(1):145-56.

40. 박인걸. 일자목 증후군 환자에게 수기요법이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2010;1-50.
41. 이진복, 조이현, 임정균, 정시영. 추나 요법을 적용한 경수부 척수 손상 환자의 경과관찰 1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0;5(1):81-9.
42. 허광호, 박영희, 금동호. 상부경추 추나 및 두개저 이완기법을 적용한 안구건조증 치험 2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11;21(2):299-307.
43. 허수영. 경추 추나치료를 적용한 압박성 요골신경마비 환자 치험 2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1;6(1):89-96.
44. 정시영, 이진복. 추나 요법을 적용한 경추 추간관 탈출증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환자의 경과관찰 1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1;6(1):105-11.
45. 우재혁, 한경완, 김은석, 이슬지, 이준석, 남지환, 김기원, 이민정, 유인식. 교통사고로 발생한 경항통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병행치료군과 중성어혈약침 병행치료군의 비교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11;28(5):9-18.
46. 김진수, 정윤규, 김정원, 신동재, 남향우, 정별. Muscle Energy Techniques 및 한의학적 치료를 이용한 후천성 회전형 사경의 치험 1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1;6(1):75-88.
47. 김은수, 김태현, 이성철, 배상은, 우재혁, 한경완, 이태규. 교통사고 후 경추부 염좌를 진단 받은 환자들에 대한 추나 치료의 효과. 대한스포츠한의학회지. 2011;11(1):49-56.
48. 박종민, 이명중. 경추 추간관 탈출증으로 수술 권유를 받은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가 임상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1;6(1):35-42.
49. 명지신. 카이로프랙틱 경추교정이 대학생들의 경추배열과 경부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서대학교. 2011;1-36.
50. 윤석훈, 정우석, 조송현, 조홍석. 교통사고로 유발된 경추성 두통 환자의 추나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12;22(2):165-75.
51. 신현진, 윤일지. 교통사고로 유발된 편타성 손상에 대한 근에너지기법(MET)의 임상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2;20(2):133-40.
52. 박국지, 김병정, 이성준, 강준혁, 박민규. 경추 후만에 대한 추나치료 치험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2012;7(1):95-101.
53. 이준석, 이슬지, 남지환, 김기원, 이민정, 임수진, 전재윤, 송주현. 교통사고 후 경항통 발생 환자 중 약침치료군, 추나치료군, 추나약침 병행치료군 비교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12;29(5):87-95.
54. 이재훈, 김준수, 양기영, 한상엽, 이차로, 신흥균.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경항통에 대한 약침과 추나의 치료효과 비교 연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12;22(1):75-83.
55. 최희승, 엄봉근, 김주영, 한상욱, 정윤규, 신동재. PubMed를 통해 살펴 본 요통에 대한 추나 치료 연구의 최신 동향.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12;22(4):99-113.